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홍길동축제’는 끝났지만 ‘꽃의 향연’은 계속된다

장성군, 오는 27일까지 봄꽃축제장 연장 개방



장성군이 제 19회 '장성 홍길동 축제' (이하 '홍길동축제')의 관광객들을 맞이 위해 심은 황룡강변의 꽃이 오는 주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이 지난 18~20일 열린 '홍길동축제'를 위해 황룡강변에 꽃 양귀비와 수레국화, 안개초, 금영화 등으로 꽃길을 조성했다.

장성군은 황룡강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축제가 끝난 뒤에도 일주일간 황룡강변의 황

미랜드에서 제1황룡교까지 3.2km 구간을 개방할 예정으로 오는 27일 까지 황룡강변을 수놓은 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식재한 꽃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양귀비다. 절세미인 양귀비의 이름이 붙은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꽃색이 워낙 선명하고 아름다워 여러 꽃 사이에서도 그 자태가 눈에 확 띠 정도다. 양귀비와 꽃 모양이 흡사하지만 한국에선 재배할 수 없는 양귀비와는 달리 마약 성분

이 없어 안전하다.

수레국화는 꽃 모양이 전차수레의 바퀴 모양을 닮았다. 장성군은 청색, 남청색, 흰색 등 여러 가지 색의 수레국화 중 특히 꽃색이 아름다운 청보라색 수레국화를 집중적으로 심었다.

안개초는 꽃 하나하나가 작지만 군락을 이루면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이다. 흰색과 분홍 안개초가 관광객들을 맞는다. 금영화는 캘리포니아양귀비로 불린다. 장성군은 '헬로우시티'를 상징하는 노란색 금영화를 주로 심었다.

장성군은 사진으로 황룡강의 추억을 남길 관광객들을 위해 서삼교 플라워터널에는 1,000여개의 꽃들로 장식한 포토존도 마련했다.

장성군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황룡강변 플라워터널 입구에서 안내소를 운영해 꽃길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안내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축제 후에 찾아온 관광객들까지 고려해 꽃길을 꾸민다"라면서 "꽃의 자태가 오는 주말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많은 관광객들의 꽃길으로 조성한 황룡강을 찾아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구례군, 갈색날개매미충 과수농가 적기 방제 당부

구례군은 올해도 갈색날개매미충으로 인한 과수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초기대응에 철저하 해 출몰을 당부하고 나섰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어린 가지 속에서 신란을 월동하기 때문에 5월 하순에 유충이 깨어나면 가지마름 증상을 유발해 생육장애가 발생하며, 유충과 성충의 배설물에 의한 그늘을 증상과 흡수에 의한 수세약화를 일으켜 수량감소 및 열매의 상품성 저하 등 피해를 줄 수 있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는 해충의 발육 최저온도와 부화에 필요한 일평균기온을 합산하여 부화시기를 예측한 결과 지난해 비해 3일 정도 앞당겨진 5월 7일경을 최초 부화일로, 오는 28일경을 부화최종기로 보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고흥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 선정



고흥군 보건소는 '제10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국 264개 보건소 중 작년 동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 등 사업진행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 고흥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9백만원을 수상하게 되었다.

고흥군 보건소는 생애주기별 건강수준에 맞는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다양한 건강사업을 추진하여 보건의로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만족도 증진에서 전남도와 평가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비싼 직장인 흡연자를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한방불면증 및 월경통클리닉 △근역별 고혈압·당뇨교실 △아이쿠(수중) 관절운동 △군민중심 찾아가는 드림방문사업 등의 50여개 프로그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현재흡연율'과 '남자흡연율'의 지표가 각각 12.8%와 25.3%로 전국 최하위치를 기록하였으며 이외에도 뇌졸중·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 등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영광군, 아름다운 영상 공모전 개최

영광군은 아름다운 영광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SNS를 통한 홍보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영광을 홍보할 수 있는 자연경관, 관광명소, 축제, 특산물 등 영광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영상이면 되며 누구나 제

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10월 31일까지 수상자 발표는 11월 심사를 거쳐 12월 예정이다. 총 시상금은 590만원이며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 각 70만원, 장려상 3명에게 각 50만원이다. 접수는 작품과 신청서를 전자우편

(glory_yg@naver.com)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각으로 영광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작품을 기대한다며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www.yeonggwa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중국 덩핑시, 협력·상생 우호교류 협약 체결



함평군과 중국 덩핑시가 21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나가기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홍양 덩핑시 상무부시장, 안병호 함평군수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

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협의서에 서명하고 두 손을 맞잡았다.

강홍양 부시장과 안 군수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공연 교류 확대 ▲경제, 무역, 투자유치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 군수는 "두 도시가 서로 협력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넘치는 것들을 나눠 상생과 번영의

길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

이에 강홍양 부시장은 "함평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천혜의 고장"이라고 화답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덩핑시와 함평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덩핑시의 우호교류 협약은 지난 2013년 함평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며 급물살을 탔으나,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연기된 바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오다 지난 7일 막을 내린 제 20회 함평내비대축제에 소림무술단을 초청하며 재추진됐다.

함평=김광춘 기자

극한의 스포츠 '신안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성료

500여명의 철인3종 동호인·엘리트 선수 함께 출전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극한의 스포츠, 2018 신안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지난 20일 신안군 증도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신안군이 주최하고 (사)대한철인 3종협회와 공동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해 처음 성공 개최 이후 전국대회로 승격되어 500여명의 철인3종 동호인과 엘리트 선수가 함께 출전했다.

참가선수 중 80%(400명)는 서울 강원도, 부산 등 전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증도를 관광도 하며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황금연휴기간 대회가 열려 '슬로 시티 보물찾기' 축제와 증도 무료버스터, 극단 '갯벌의 마술쇼'와 마당극 등으로 증도를 찾은 철인 동호인과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안겨주었다.

특히, 최고령 선수 윤취용(82세)씨부터 17세 주니어선수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하였다.

대회 시상품으로는 농어건전과 죽염, 꽃소금 등 신안 특산품이 지급되었으며 동호인 전체 1위를 차지한 이진홍(42세)씨는 왕의 진상품인 귀한 민어건전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들은 교통이 다소 불편했지만 군 대표 관광지 슬로시티 증도에서 아름다운 우천 해변과 한반도 해송숲을 끼고 달리는 대회 코스는 전국 최고였다고 입을 모았다.

신안군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 대회에서도 단 한건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져 굉장하다"며, "부족한 교통망 구축 등 제반 여건을 잘 준비하여 내년에는 국제대회가 유치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한국 관광 100선,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서 매년 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형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